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99-3호)

여론속의 여輿論論

사회지표: 부동산 인식조사

2020. 10. 13.

담당자 이동한 차장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조사실무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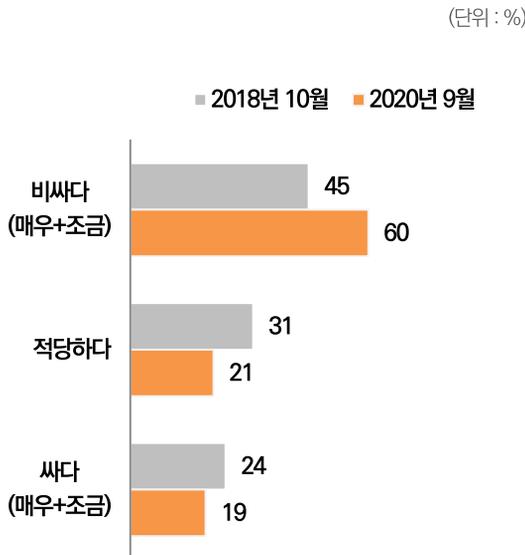
집값과 주택 구입

현 거주 지역의 집값 비싸다 60%, 1년 전 대비 15%포인트 증가 6개월 후 현 거주 지역의 집값, 지금보다 오르거나 비슷할 것이다 86%

2020년 9월 25일 ~ 28일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, 현재 거주지역의 집값이 비싸다는 의견이 60%를 차지하였다(매우 비싸다 26%, 비싼 편이다 34%). 2018년 10월 진행한 조사(<https://hrcopinion.co.kr/archives/11819>) 결과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응답은 15%포인트 늘어난 반면, 적당하다는 응답은 10%포인트, 싸다는 응답은 5%포인트 줄어든 결과이다. 특히 서울지역 거주자는 77%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고 답했고,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응답자도 73%가 비싸다고 응답했다.

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6개월 후 집값에 대한 전망에는 지금보다 오를 것이다(37%)와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(49%)라는 응답이 86%를 차지하였다. 종합해 보면, 현재 집값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,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현 거주 지역의 집값 비싸다 60%
2018년 9월 조사 대비 15%포인트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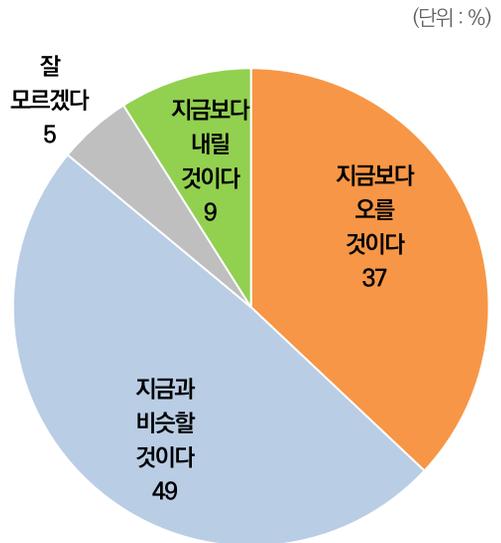


질문 : 지금 살고 계신 시·군·구 지역의 현재 집값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

표본 수 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 : 2018. 10. 20 ~ 10. 23, 2020. 9. 25 ~ 9. 28

6개월 후 현 거주 지역 집값,
지금과 비슷 49%, 지금보다 오를 것 37%



질문 : 지금 살고 계신 시·군·구 지역의 6개월 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
표본 수 : 1,000명

조사기간 : 2020. 9. 25 ~ 9. 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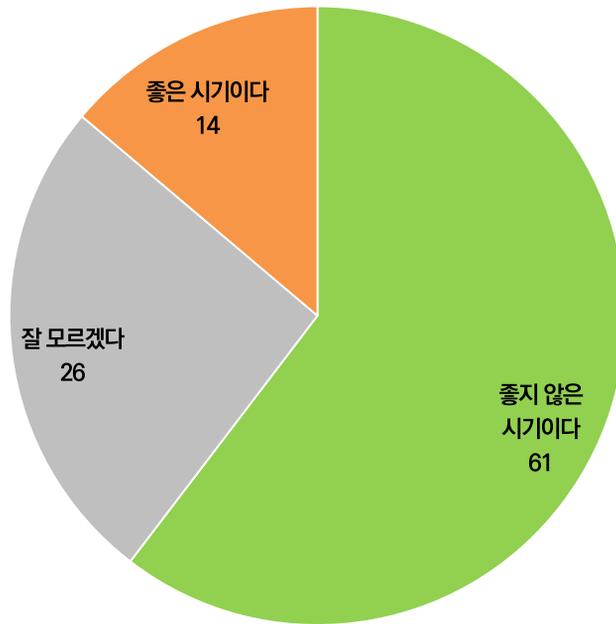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현재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이다 61%

한편, 전체 응답자의 61%가 현재는 집을 사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응답하였다. 집을 구입할 적기라는 응답은 13% 그쳤다. 현재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모두 집을 구입하기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10% 초반에 그쳐,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있음이 확인되었다.

현재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의견 61%로 다수

(단위 : %)



질문 : 현재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,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?

표본 수 : 1,000명

조사기간 : 2020. 9. 25 ~ 9. 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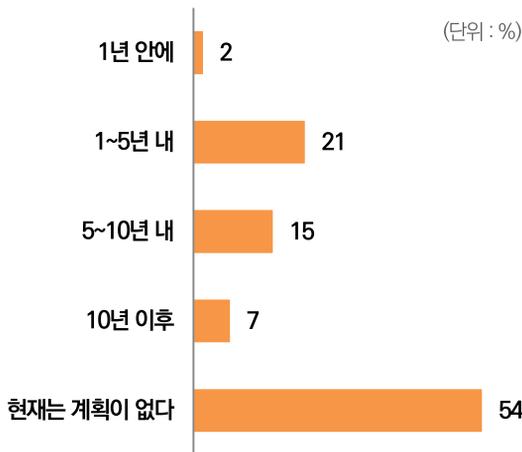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on.co.kr)

향후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 23% 향후 5년 내 보유 주택 처분 계획 있다 30%

전체 응답자 중 23%가 향후 5년 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(1년 내 구입 2%, 1~5년 내 구입 21%). 5~10년 내 구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5%였다.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33%, 34%로 높은 편이었다.

현재 본인 혹은 가구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, 향후 5년 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0%였다(1년 내 처분 5%, 1~5년 내 처분 25%).

향후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는 응답 2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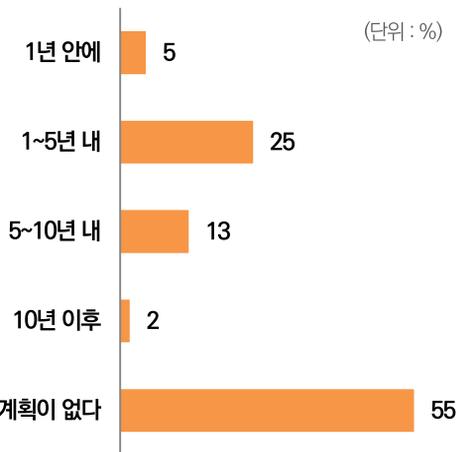


질문 :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? 있다면 언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?

표본 수: 1,000명

조사기간 : 2020. 9. 25 ~ 9. 28

향후 5년 내 보유 주택 처분 계획 있다는 응답 30%



질문: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?

있다면 언제 팔 예정이십니까?

표본 수: 본인 혹은 가구원 명의 주택 보유자 571명

조사기간 : 2020. 9. 25 ~ 9. 28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2

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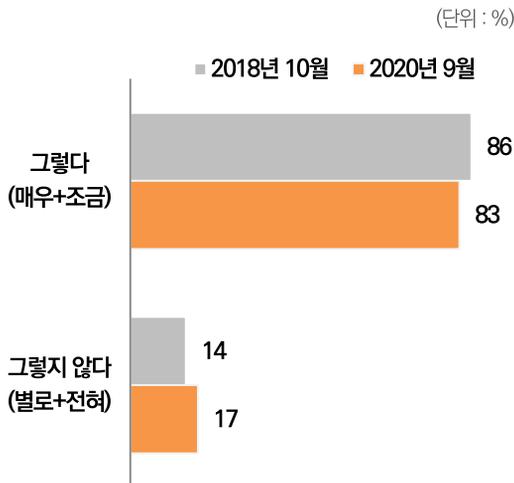
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83% 하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44%만이 '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' 답해

집값은 매우 높은 축에 속하고, 지속적으로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, 현재는 주택을 구입하기에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는 있지만,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83%에 이른다(매우 그렇다 38%, 대체로 그렇다 44%). 이는 2018년 10월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, 주택소유가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자가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그런데, 몇 가지 조건에 따른 주택 소유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는 흥미롭다.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아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82%로 앞선 결과와 차이가 없다.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6%로 높다. 주택의 자산가치, 혹은 투자가치가 부정적으로 변해도 내집 마련 필요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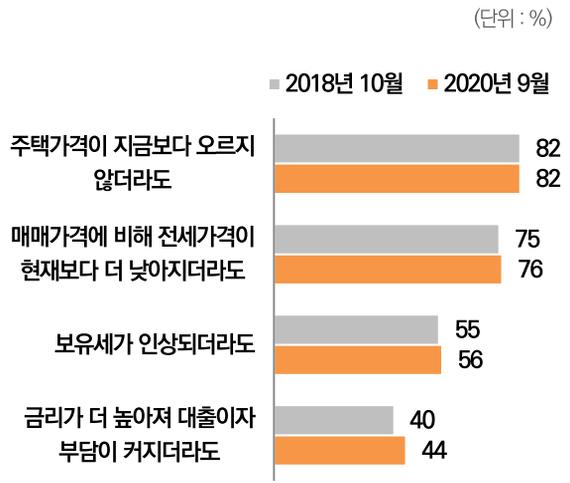
반면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6%로 크게 하락한다. 금리가 인상되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절반 이하인 44%만이 내 소유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. 주택 보유 이후 뒤따라오는 금전적 부담은 내집 마련 필요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다.

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 83%
2018년 10월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



질문 :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표본 수 : 각 조사별 1,000명
조사기간 : 2018. 10. 20 ~ 10..23, 2020. 9. 25 ~ 9. 28

하지만 금전적 부담이 커질 경우,
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은 크게 줄어드는 것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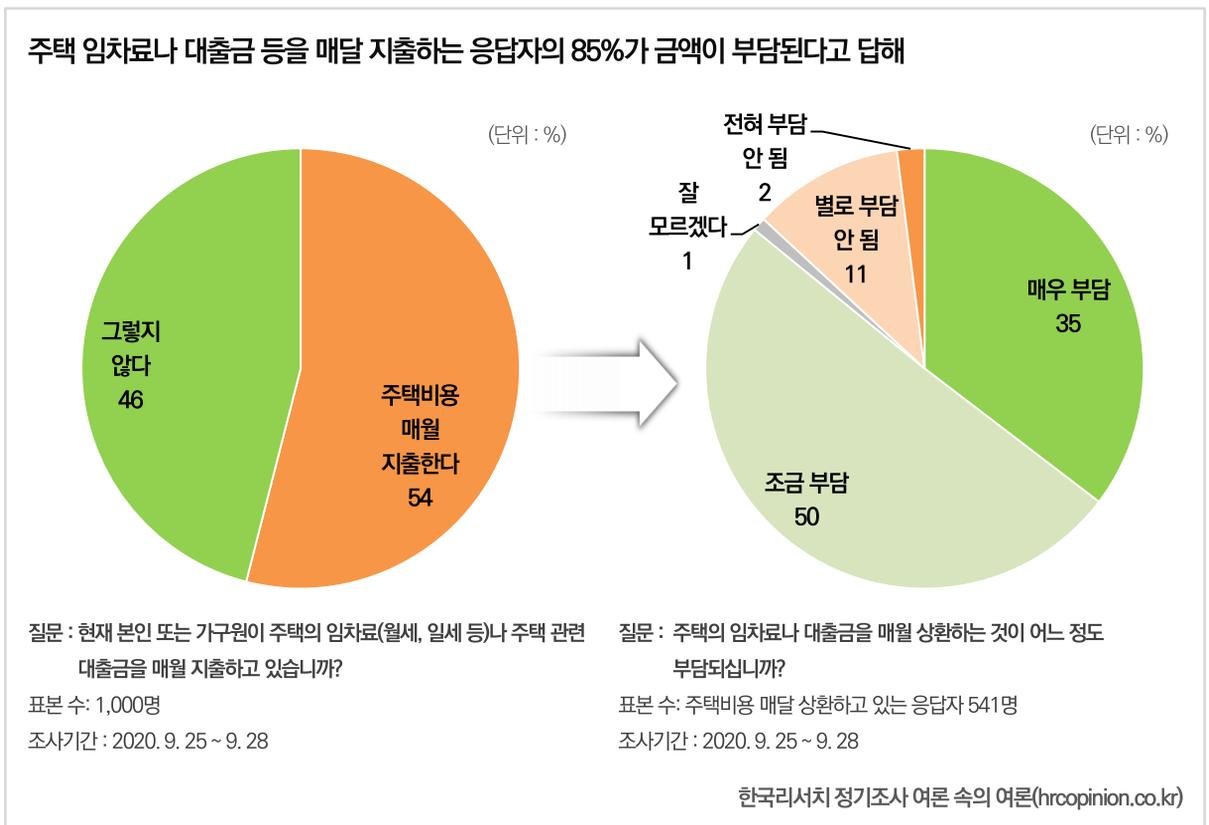
질문 : 주택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?
표본 수 : 각 조사별 1,000명
비고 : 각 항목별로 '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(매우+대체로)' 응답만 제시
조사기간 : 2018. 10. 20 ~ 10..23, 2020. 9. 25 ~ 9. 28

3

주택 관련 인식

주택 임차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된다 85%

전체 응답자의 54%가 현재 주택 임차료나 대출금 등 주택비용을 매달 상환하고 있다고 답했고, 이 중 85%가 주택비용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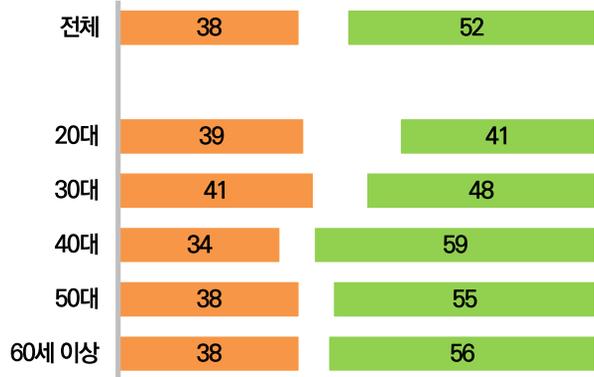


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 52%, 바람직하다 38%

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52%로, 바람직하다는 응답(38%)보다 높았다.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.

**부동산 투자,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지만
20, 30대에선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차 크지 않아**

(단위: %)



질문 :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,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

표본 수: 1,000명

조사기간 : 2020. 9. 25 ~ 9. 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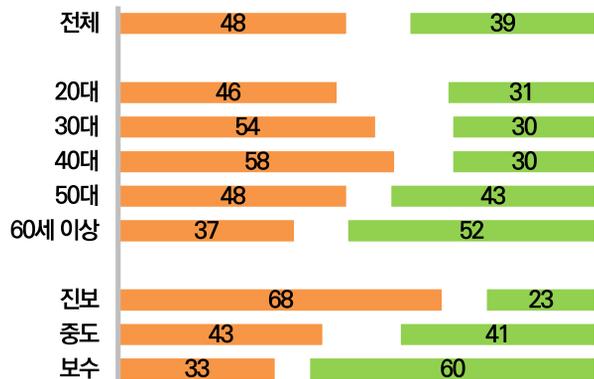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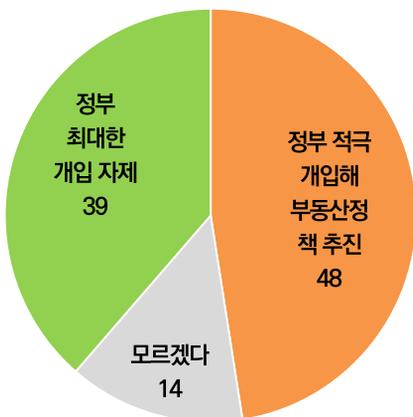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48%

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8%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(39%)보다 높았다.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나,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으라는 요구가 좀 더 많은 것이다.

**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48%
60세 이상과 보수 성향 응답자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더 높아**

(단위: %)



질문 : 귀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?

표본 수: 1,000명

조사기간 : 2020. 9. 25 ~ 9. 28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구분	내용
모집단	•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
표집틀	•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19년 8월 기준 약 54만명)
표집방법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• 1,000명
표본오차	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p$
조사방법	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 (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• 조사요청 7,629명 , 조사참여 1,275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3.1%, 참여대비 78.4%)
조사일시	• 2020년 9월 25일 ~ 9월 28일
조사기관	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
여輿論論

40 YEARS Hankook Research

